

2011년 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22

고린도전서에서

(2)

우리의 영적인 음식, 우리의 영적인 반석, 주님의 상의 내용

성경: 고전 10:3-4, 16-17, 21, 11:23-26

- I. 출애굽기 16 장에 있는 깊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사를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 보내신 우리의 영적인 음식, 참 만나이신 그리스도라는 식사로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이다—고전 10:3, 요 6:31-35, 48-51, 57-58.
- A.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먹는 것은 다 우리의 재조성 요소와 공급이 되어 우리를 이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는데, 이것은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출 16:16, 32.
 - B. 금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가 하나님의 거처의 초점이듯이, 우리가 먹은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의 건축물의 초점이다—히 9:3-4, 엡 4:16, 골 2:19.
 - C. 우리가 우리의 유지와 힘과 만족을 위해 먹는 유일한 음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신약 안의 유일한 한 사역이어야 한다—민 11:5-6, 비교 행 1:17, 25, 고후 4:1, 딤후 1:12, 고후 3:6.
 - D. 우리의 유일한 음식, 우리의 매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의 특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누릴 때 우리의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통해 그분을 확대하도록 우리의 특징들이 된다—요 6:57, 빌 1:20-21, 비교 갈 6:17.
 - 1. 만나는 비밀이다—출 16:15, 골 2:2, 사 9:6, 엡 3:4, 요 3:8.
 - 2. 만나는 장기적인 기적이다—출 16:4, 비교 마 6:34.
 - 3. 만나는 하늘에서 온다—출 16:4, 요 6:41.
 - 4. 만나는 이슬과 함께 온다—출 16:13-14, 민 11:9, 시 133:3, 애 3:22-23, 히 4:16, 시 110:3.
 - 5. 만나는 아침에 온다—출 16:21, 비교 아 1:6 하, 7:12, 요 5:39-40, 롬 6:4, 7:6.
 - 6. 만나는 작다—출 16:14, 눅 2:12, 요 6:35, 비교 삿 9:9, 11, 13, 마 13:31-32.
 - 7. 만나는 세미하다—출 16:14, 요 6:12.
 - 8. 만나는 둥글다—출 16:14, 요 8:58.
 - 9. 만나는 희다—출 16:31, 시 12:6, 119:140, 고후 11:3 하.
 - 10. 만나는 서리 같다—출 16:14, 잠 17:27.
 - 11. 만나는 짝씨 같다—출 16:31, 민 11:7, 눅 8:11.
 - 12. 만나는 딱딱하다—민 11:8, 고후 1:4, 엡 6:18.
 - 13. 만나는 모양이 진주 같다—민 11:7, 계 4:6, 8, 겔 1:18.
 - 14. 만나의 맛은 신선한 기름 같다—민 11:8, 시 92:10.
 - 15.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출 16:31, 시 119:103.
 - 16. 만나는 과자를 만들기에 좋다—민 11:8, 딤후 4:6.
- II.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그분의 백성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이 되셨다. 이렇게 따르는 반석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물로 그분의 믿는 이들을 공급하신다—고전 10:4, 출 17:6, 민 20:8, 요 19:34.
- A.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의 어려움은 생명의 영을 예표하는 물의 부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영이 부족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영이 풍성할 때 그들 사이에 있는 문제들과 하나님에 대해 가진 문제들은 해결된다—민 20:2-13, 요 7:37-39, 롬 8:2.

- B.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영이 주어지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못 박히실 필요가 없다. 즉, 생수가 흐르도록 반석이 다시 매 맞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히 7:27, 9:26-28 상.
- C.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받으려면 우리는 다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말하면’ 된다—민 20:8.
1. 지팡이를 드는 것은 죽음 안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2. 반석에게 말하는 것은 매맞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직접 말하는 것으로서, 그 영이 이미 주어지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주시기를 그분께 구하는 것이다—비교 요 4:10, 눅 11:13.
 3.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구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넘치는 공급인 산 영을 받을 것이다.
- D. 반석에게 말하는 대신 모세는 백성에게 화를 내며 그들을 반역자들이라고 유죄 판결하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민 20:9-11.
1. 모세는 그 백성을 반역자들이라고 유죄판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반역한 사람은 모세였다—24 절, 27:14.
 2.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분을 성별하지 않았다—20:12.
 - a. 하나님을 성별하는 것은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즉 그분을 모든 거짓 신들과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성별하지 않은 것은 그분을 범속하게 만드는 것이다.
 - b.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았는데 모세는 백성에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그분의 거룩한 본성 안에서 올바르게 대표하지 않았고, 반석을 두 번 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신성한 경륜 둘 다를 범했다.
 - c. 이때문에, 비록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동반자로 여겨졌었지만(출 33:11), 좋은 땅에 들어갈 권리를 잃었다.
 3.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의 신성한 경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그분을 성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위에서 우리는 그분을 거스려 반역하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III.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재이시다—고전 10:16-17, 21, 11:23-26.

- A. 주님의 상의 강조점은 그분의 피와 몸의 교통, 주님께 참여함, 상호성 안에, 교통 안에 주님을 누림이다—고전 10:16-17, 21.
1.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잔치이신 그분께 동참하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좋은 땅의 산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잔치가 되시기 위해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다—비교 신 8:7-10.
 - a.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피와 몸을 가질 수 없으셨을 것이다. 육체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피와 살이 있는 몸을 입으셨다—히 2:14.
 - b. 만약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피는 그분의 몸과 분리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 그분의 피는 그분의 몸과 분리되었다—요 6:53-55.
 - c.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음식으로서 상위에 놓일 수 없으셨을 것이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양육과 누림을 위한 잔치로서 상위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신다.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고전 15:45 하, 고후 3:17.
 2. 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하셨다.—마 26:26.

- a. 떡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 떡은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육신의 몸을 상징한다—요 6:35, 57, 63, 눅 22:19.
 - b. 떡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행정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인 주님의 비밀한 몸을 상징한다—엡 1:22-23, 4:16, 계 5:6.
 - c.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누려 주님의 신성한 생명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비밀한 몸, 그분의 확대가 된다—고전 10:17, 12:27.
3. 주 예수님께서서는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마 26:27-28.
- a. 그 잔은 축복, 즉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시 16:5.
 - b.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몫,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축복이신 하나님이 내용이 되는 넘치는 구원의 잔이 되었다—시 16:13, 23:5.
 - c. 새 언약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이끄는데,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그분의 영, 생명의 내적인 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소유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겔 36:26-27, 눅 22:20, 히 8:10-12, 시 103:1-3, 12.
 - d. 언약의 피는 우리를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데, 지성소는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주입과 옮겨부음 안으로 이끌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누림 안으로 이끌리는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시 27:4, 출 24:8, 비교 레 16:11-16.
 - e. 궁극적으로, 영원한 언약인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나무와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지금과 영원 모두에서 완전히 누리도록 인도한다—히 13:20, 계 7:14, 17, 22:1-2, 14, 17.
- B.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전 11:26, 비교 롬 5:10.
1.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분이 첫 번째로 오셔서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시고 교회를 산출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요 12:24, 19:34.
 2. ‘까지’란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 안에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을 함축한다.
 3. ‘그분께서 오실’은 주님이 마태복음 26 장 29 절에서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분이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이다.
 4. 그러므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왕국을 가져오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반드시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